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고찰 필요성 조사 연구

최정석*, 김건엽*, 홍장희*

I. 서론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불임부부의 치유를 위한 인위적인 수태가 가능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선천적인 이유에 의하거나 후천적인 이유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임신은 불가능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들은 대부분 입양이나 혼인 외의 출산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불임부부들은 자신의 혈통이 조금이나마 보존된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독신녀에 대한 적용, 정자은행의 설치, 정자의 선택 등으로 인종개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임신,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의 연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생명 탄생의 기전을 인공적으로 조절하기에 이르렀다.¹⁾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5년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후 많은 불임 가정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인공수정의 시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 보조생식술 현황'이라는 조사보고서^{2,3)}에 의하면 인공수

정의 시술이 점차 증가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도나 의식 등은 그에 맞추어 정비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인공수정된 아이의 법적 지위, 해당 부모로서 따르는 책임, 이식에 이용되는 정자, 난자, 모체의 제공이 상업화되는 점 등 매우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인공수정시술과 관련하여 1993년 1월 보사부는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의 파행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자를 AIDS 예방법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위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불임클리닉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 등 6곳에서 제공된 정자에 대해 AIDS 등의 질병 검사를 하지 않고 시술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또, 정자제공을 꺼리는 일반적 풍조 때문에 실습중인 의대생이나 심지어 병원근처 청년의 정액을 받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⁴⁾ 이 사건 결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3년 5월에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⁵⁾을 제정하여, 인준된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은 그 시술내용을 연 1회 이상 대한의사협회(또는 동 협회가 지정한 관련학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⁶⁾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 건양대학교 의학과

- 1) 이정식.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 4-6
- 2)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보고서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 1995년.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99 ; 42(4)
- 3)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보고서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 1997년.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99 ; 42(10)
- 4) 중앙일보(1993년 1월 21일)
- 5) 대한의학회.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 1993
- 6)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보고서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 1991년.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 47(12) : 2285-2302

사회적 합의나 윤리적 검토가 있기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기술의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윤리적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표 1〉 인공수정의 시술 현황

년도	시술기관수	건수	시술기관당건수
1994	63	9,864	156.6
1995	34	8,912	262.1
1996	35	8,694	248.4
1997	48	16,622	346.3
2001	53	15,619	294.7

II. 조사 방법

본 조사는 2003년 11월 한 달 동안 사전에 훈련된 의과대학생들이 1대1 설문조사 방법과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의과대학생 61명, 한의과대학생 38명, 대학교수 18명, 산모 50명, 고등학교 교사 44명,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거리조사 151명,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일반 성인 390명에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혼인여부, 학력을 조사하였고, 인공수정에 대한 경험, 지식정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정도를 조사하였고, 수정란과 배아에 관한 윤리적 문제,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에 관한 문제, 정자와 난자의 공여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10.1판을 이용하여 각각의 질문 문항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 결과

1. 응답자 인적사항

①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과 혼인여부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84명(64.4%), 여성이 268명(35.6%)이었다. 연령은 20-30대가 535명(71.1%), 40-50대 217명(28.9%)이었다. 혼인여부는 기혼이 400명(53.2%), 미혼 352명(46.8%)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자수	퍼센트
남성	484	64.4
여성	268	35.6
계	752	100.0

〈표 3〉 조사대상자의 연령

	응답자수	퍼센트
20-30대	535	71.1
40-50대	217	28.9
계	752	100.0

〈표 4〉 조사대상자의 혼인여부

	응답자수	퍼센트
기혼	400	53.2
미혼	352	46.8
계	752	100.0

② 조사대상자의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재학생 포함)가 467명(62.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211명(28.1%), 대학원 졸업자(재학생 포함) 41명(5.5%), 중학교 졸업 25명(3.3%), 초등학교 졸업 8명(1.1%)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학력

	응답자수	퍼센트
초등학교	8	1.1
중학교	25	3.3
고등학교	211	28.1
대학	467	62.1
대학원	41	5.5
계	752	100.0

③ 조사대상자의 집단구분

조사대상 집단은 인터넷을 통한 일반성인이 390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무작위 거리 조사를 통한 일반성인 151명(20.1%), 의과대학생 61명(8.1%), 산모 50명(6.6%), 고교교사 44명(5.9%), 한의과대학생 38명(5.1%), 교수 18명(2.4%)으로 구성되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집단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교수	18	2.4
의과대학생	61	8.1
한의과대학생	38	5.1
산모	50	6.6
고교교사	44	5.9
일반성인	151	20.1
인터넷을 통한 일반성인조사	390	51.9
계	752	100.0

2. 인공수정에 대한 인지, 지식 및 관심정도

인공수정을 통하여 아이를 갖은 경우를 주위에서 듣거나, 접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382명(50.8%)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응답자의 370명(49.2%)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표 7〉 인공수정에 대한 인지정도

	응답자수	퍼센트
있다	382	50.8
없다	370	49.2
계	752	100.0

인공수정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알고있다'는 대답이 479명(6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른다'가 142명(18.9%), '자세히 알고 있다'가 95명(12.6%), '전혀 모른다'가 36명(4.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인공수정에 대한 지식정도

	응답자수	퍼센트
전혀 모른다	36	4.8
모른다	142	18.9
알고있다	479	63.7
자세히 알고 있다	95	12.6
계	752	100.0

'인공수정을 실시해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설문에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다'가 483명(64.2%)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다'가 182명(24.2%),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67명(11.6%)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인공수정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응답자수	퍼센트
전혀 없다	182	24.2
생각해본 적이 있다	483	64.2
깊이 생각하고 있다	87	11.6
계	752	100.0

3. 인공수정의 결과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① 수정란과 배아에 관한 윤리적 문제

인공수정을 실시할 경우, 시술의 실패를 고려해 여분의 배아를 더 만들어 놓는다. 따라서 배아의 처리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배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 의 질문에서는 '생명체로 볼 수 있다' 는 응답자가 424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체로 볼 수 없다' 는 응답자가 195명(25.9%)으로 조사되었고, '모르겠다' 는 응답이 130명(17.3%), 기타 3명(0.4%)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수정란, 배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있다	424	56.4
없다	195	25.9
모르겠다	130	17.3
기타	3	0.4
계	752	100.0

인공수정을 실시한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배아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 경우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다' 는

〈표 11〉 인공수정을 시술한 부부의 이혼 시 배아소유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남편	68	9.0
아내	184	24.5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배우자	223	29.7
폐기	41	5.5
모르겠다	198	26.3
기타	38	5.1
계	752	100.0

응답이 68명(9.0%)으로 조사되었고,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배우자에 있다' 가 223명(29.7%),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다' 가 184명(24.5%), '모르겠다' 가 198명(26.3%), '폐기해야한다' 가 41명(5.5%), 기타 38명(5.1%)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수정이 끝난 후 남은 배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는 '다른 부부에게 기증한다' 는 317명(42.2%)를 차지하였고, '모르겠다' 가 165명(21.9%), '폐기해야한다' 가 154명(20.5%), '연구용으로 기증한다' 가 108명(14.4%), 기타 8명(1.1%)로 조사되었다.

〈표 12〉 인공수정시술 후 남은 배아의 처리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다른 불임부부에게 기증	317	42.2
연구용 기증	108	14.4
폐기	154	20.5
모르겠다	165	21.9
기타	8	1.1
계	752	100.0

② 대리모에 관한 윤리적 문제

대리모란 남·여 배우자가 다양한 불임증의 상황에 따라 다른 여성의 출산을 매개로 하여 아기를 얻는 방법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인공수정의 시술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남자와 정자를 체외수정을 하여 그 배아를

〈표 13〉 대리모와 친모가 서로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친모(난자제공자)	408	54.3
대리모	148	19.7
모르겠다	188	25.0
기타	8	1.1
계	752	100.0

7)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2판. 서울 : 계축문화사, 2003 : 314-316

대리모의 자궁에 주입해 주어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방법을 말한다.⁸⁾ 여기에서도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먼저 대리모와 친모가 서로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를 물어보았다.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08명(54.3%), 모르겠다가 188명(25.0%), 대리모가 148명(19.7%), 기타 8명(1.1%)으로 조사되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 대리모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가 553명(73.5%), ‘알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105명(14.0%), ‘모르겠다’가 85명(11.3%), 기타 9명(1.2%)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 대리모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알려야 한다	105	14.0
알리지말아야 한다	553	73.5
모르겠다	85	11.3
기타	9	1.2
계	752	100.0

③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에 따른 문제와 정자와 난자의 공여에 관한 문제

남편 혹은 아내의 신체이상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생성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라고 한다.⁹⁾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 ‘정당한 치료인가’, ‘간통인가’를 조사하였다. ‘정당한 치료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93명(52.3%), ‘모르겠다’가 224명(29.8%), ‘간통이다’가 110명(14.6%), 기타가 25명(3.3%)으로 조사되었다.

정자와 난자의 공여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을 서로 알게 해야하

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483명(64.2%), 서로 알 수 있게 ‘밝혀야 한다’는 응답자는 162명(21.5%), ‘모르겠다’가 99명(13.2%), 기타가 8명(1.1%)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은 정당한 치료인가 간통인가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정당한 치료	393	52.3
간통	110	14.6
모르겠다	224	29.8
기타	25	3.3
계	752	100.0

〈표 16〉 정자, 난자의 공여자와 수여자를 밝혀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밝혀야한다	162	21.5
밝히지말아야 한다	483	64.2
모르겠다	99	13.2
기타	8	1.1
계	752	100.0

④ 인공수정을 계속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인공수정을 실시하면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함에도 인공수정을 계속 실시해야하는가에 관한 물음에서는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8명(68.9%)으로 가장 많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7명(10.2%),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45명(19.3%), 기타 의견이 12명(1.6%)으로 조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2판. 서울 : 계축문화사, 2003 : 309-314

9)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2판. 계축문화사. 2003: 306-314

〈표 17〉 인공수정을 계속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조사

	응답자수	퍼센트
실시해야 한다	518	68.9
금지해야 한다	77	10.2
모르겠다	145	19.3
기타	12	1.6
계	752	100.0

IV. 고찰

1. 인공수정에 관한 경험, 관심과 지식여부

인공수정에 대한 경험의 정도와 지식의 정도 그리고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관심의 정도를 조사하여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공수정에 대한 지식여부를 묻는 문제에서도 '알고 있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는 대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인공수정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인공수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가 24.2%로 조사되어 윤리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수정란과 배아에 관한 윤리적 문제

인공수정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란과 배아의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윤리적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인공수정을 실시할 경우 시술의 실패를 고려해 만들어 놓은 여분의 배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배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는 '생명체로 볼 수 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을 넘었다. 인공수정이 끝난 후 남은 배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는 '다른 부부에게 기증한다' 42% '연구용으로 기증한다' 14%로 나타나 '폐기해야 한다'의 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배

아도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공수정을 실시한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배아의 처리 문제의 결과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응답보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배우자와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남편 보다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한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특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 임신 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 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논쟁이 되었다.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에 대해 대리모계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출산한 사람을 어머니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대리모와 친모가 서로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를 물어본 결과는 난자를 제공한 사람의 소유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 이상인 반면 대리모로 응답한 사람이 2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 법과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 '대리모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알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105명(14%), '알리지 말아야 한다' 553명(73.5%), '모르겠다' 85명(11.3%) 기타 9명(1.2%)으로 조사되었다. 1986년 이기영의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10)에서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알려서는 안 된다'가 83.2%, '알려야 한다'가 12.5%, 기타 4.3%이었던 것

10) 이기영.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 127-129

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권리인 자신의 출생 과정을 알 권리와 아이의 정서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됨을 알 수 있다.

4.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문제와 정자, 난자의 공여 문제

남편 혹은 아내의 신체 이상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생성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라고 한다. 배우자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정자나 난자를 공여받았다는 점에서는 이를 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 '정당한 치료인가', '간통인가'를 조사하였다. 정당한 치료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 이상이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30% 정도로 간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지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자와 난자의 공여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을 서로 알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서로 알 수 있게 밝혀야 한다'는 응답자가 20% 정도였고 반면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60%를 넘었다.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¹¹⁾에서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1.7%로 조사되었던 것을 볼 때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여자를 밝힐 경우 정자나 난자의 우열이 문제될 수도 있고, 정자나 난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인 아이가 자란 후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와 양육부모 사이에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인공수정을 계속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인공수정은 다른 의료행위와 구별된다. 첫째, 인공수정은 인간 생명 창조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를 갖는 방법으로 인간 생명의 창조가 자연적인 성결함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의료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공수정은 단지 의료기술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둘째, 인공수정 특히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은 일부 일처제에 입각한 결혼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혼, 성, 가정 등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셋째,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정자나 난자, 수정란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윤리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구별된다.¹²⁾ 이러한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고려하고도 인공수정이 실시돼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0%정도로 가장 많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0%정도로 조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의 조사결과도 80% 이상이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¹³⁾ 이점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연구의 제한점

연구 대상 표본이 적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조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사 대상 집단이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가 전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나타낸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 설문지조사방법의 한계로, 대상자의 생각을 정확히 조

11) 이기영.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124-126

12) 성민선. 인공수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정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 23-46

13) 이기영.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141-143

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다양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2003년 11월 한 달간 실시하였고 1대1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인공수정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류를 고루 선택하여 실시하여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공수정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인공수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정당한 치료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점들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인공수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은 의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연과학 뿐만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공수정은 20세기에 들어와 불임치료의 한 방법으로 보편화되었다.¹⁴⁾ 인공수정을 정당한 치료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손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앞으로 인공수정을 시술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공수정의 보편화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색인어 : 인공수정, 대리모, 불임

14) 성민선. 인공수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정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 86-89

Survey on th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semination

CHOI Jeong-Suk*, KIM Keon-Yeop*, HONG Jang-Hee*

Purpose :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opinions and attitudes on th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semination.

Methods : The survey was done directly on medical students(99), professor(18), high school teacher(44), pregnant women(50), adults(151) and indirectly through internet on adults(390). Analysis samples included 752 case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 This study investigates social attitudes on th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semination. About 69% of respondents agreed that artificial insemination was the proper treatment for infertility. 56% of them regarded donated-egg as a living existence. Therefore they emphasized that the remaining of donated-egg were donated for other infertilized persons or medical science. Respondents were also worry over th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semination. The bioethical issues were mainly related to parental authority, surrogate mother, egg donor, and surplus egg.

key words : Artificial insemination, Surrogate mother, Infertility.

*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